

도, 여름철 감염병 선제적 대응 '총력'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위한 '집중 관리 기간' 운영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조치·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강화 등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도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 건국장은 17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병원체 증식이 쉬워지는 점에 주목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기간'을 5월 1일

부터 10월 12일까지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 14개 시군보건소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도와 시군의 위생·감염병 부서가 함께 식중독 사고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홍콩,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요양

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등 감염 취약 시설 547개소를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 취약 시설에는 도가 비축한 마스크 3만 장을 긴급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여름철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등 홍역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국 전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당부하고 있으며, 텡기열, 조류인플루엔자, 니파바이러스 등 고위험 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태국 여행 후 도내에서 텡기열 감염자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으며, 군산

시보건소는 호남권 지역거점 기관으로서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강화를 위해 손씻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 교육장비 대여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휴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식품 섭취 및 해외여행 시 특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리며, 도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예방과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100억원 규모 도내 기업 맞춤형 지원

자동차·뿌리·특장·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자치도는 1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력해 도내 자동차·뿌리·특장·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기업지원사업 설명회'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기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총 10개 사업, 약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분야 3개 과제(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사업 등), △뿌리산업 분야 2개 과제(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등), △특장차 및 항공산업 분야 5개 과제(특장차 산업 활성화,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수요맞춤형 항공산업 육성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번 설명

회를 통해 기술개발,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기술 애로 해결 등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조됐다.

'기업지원사업 설명회'와 함께 진행된 '기술 세미나'에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각각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기업지원사업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일 열리는 평가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세부 사업별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jat.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본격 운영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숙박시설 등 교육환경 갖춰... 농촌 활력 증진 거점공간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 김중훈 전북특별

자치도 경제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농업복지 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도비 35억, 시비 35억, 특고세 25억 원)을 투입해 3년 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2,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걸쳐 강의실, 교육생 휴게공간, 숙박시설 등 교

육환경을 갖췄다.

특히 지난 4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지원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규모로,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과 교육,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센터 개관을 계기로 농촌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 육성과 함께 농촌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부터 자립까지'... 아동보호서비스 협력의 장, 전북서 열려

전북·광주·전남지역 합동 '2025년 아동보호체계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 유관기관 간 실무 협력 강화와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제고에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

북·광주·전남 3개 시도의 입양담당 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교육 △공공후견 제도 운영 방안 △현장별

애로사항 공유 △기관 간 협업 방향 △중사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아동보호 행정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약 1,300여 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제도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퇴소아동의 사회 정착을 위한 상담과 사

례관리도 운영 중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총 3,371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경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돌봄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시동

도, 진출입 차단시설·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스마트한 하천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최근 전주천, 정읍천 등 주요 하천에 설치된 진출입 차단시설과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천변 진출입 차단시설은 하천 수위 상승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로, 인력 중심의 기존 통제 방식보다 인명피해 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다. 도에 따르면 전주천 87개소(원

격 23, 수동 64), 정읍천 26개소(원격 19, 수동 7) 등 총 113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원격 제어 기반 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남원 올천(8개소), 진안 정자천·진안천(2개소) 등 3개 하천의 10개 수문을 대상으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수위 관측 △수문 자동 제어 △CCTV와 자동수계설치 등을 통해 하천시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